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 한국 단기 영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우리 금융시장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자금유출이나 시장 불안상대 고조 등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와 오늘 유럽계 은행 실적악화 우려, 국제 유가 하락, 엔화 강세 심화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부진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 증시는 글로벌 쇼크 여파로 폭락을 거듭했다.

코스피는 1835.28에 장을 닫았고, 코스닥은 4년반 만에 서킷브레이커(과열방지장치)가 발동되는 소동 끝에 608.45에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요동친 탓에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9.2원 오른 1211.7원에 장을 마쳤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세계 금융시장의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기자회견에서 “변동성 확대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금 신흥국에서 선진국 이동이 원인”

변동성 확대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위험에서 안전자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기인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G2 정책기조 전환, 국제 유가하락, 주요국 정책 대응의 불확실성 등이 맞물리며 자금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 김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대응능력 등을 감안했을 때 머지 않아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주요 신흥국의 외화부채 증가율은 한국이 29.5%인데 비해 중국(153%), 멕시코(118%), 브라질(11%), 인도(104%) 등은 모두 100%가 넘는다.

또 올해 주요국 증시 하락폭은 미국 다우지수 -10%, 영국 -11.4% 독일 -18.5%, 중국 -21.9% 등이지만 우리나라는 -5.1% 수준에 그쳤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4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국내 은행들이 2008년 위기 상황을 다시 맞아도 3개월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 유출은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고 한국은 설연휴 북한 리스크 등을 겪고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홍콩 항셱중국기업지수(HSCEI·홍

콩지수)가 급락하면서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손실 우려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실제 H지수 하락으로 일부 ELS가 원금손실(녹인·Knock-in) 구간에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현재 발행된 H지수 기초 ELS 발행량의 96.7%는 2018년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사이 주가가 일정 수준을 회복하면 투자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H지수 ELS로 자금을 조달한 증권사들의 건전성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작년 9월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486.7%로 권고수준인 150%를 훌쩍 넘는다”며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ELS 불안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고화질 CCTV·지능형 영상시스템 도입

정부가 인천공항 보안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잇따른 공항 밀입국 사건과 관련,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새누리당 당정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공항 보안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구체적으로 밀입국 사건 이후 경비·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검색장 문 이중 잠금과 경비·순찰과 상황실 CCTV 모니터링 강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 CCTV를 최첨단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도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상황실과 현장 경비인력을 확충하는 등 경비보안시스템 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한성 법제사법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나왔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공항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항공 보안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커 외부전문가를 포함,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 정밀진단을 하고 있다.

/이성주기자

지난해 생보·손보사 당기순이익 6조 넘어

지난해 보험회사들은 보험영업이익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투자 수익 등으로 손실을 만회, 6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3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13.3%(8000억원) 증가했다.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6000억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12%(4000억원) 늘었고,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7000억원으로 15.1%(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영업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수입수수료 등 영업 외 이익과 배당수익 등의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늘었다.

생보사는 보험영업에서 20조9131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반면 투자영업이익과 영업 외 수익은 각각 21조4417억원, 3조 8673억원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의 보험영업은 2조852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투자영업이익은 6조3309억원, 영업 외 수익은 159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9%로 0.01%p 올랐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99%로 2014년과 같은 수치에 머물렀다.

/김민근 기자

삼성전자 TV로 유럽 공략

그리말디 포럼서 역대 최다 SUHD TV 라인업 선보여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 확대에 발을 딛었다.

삼성전자는 11일(현지시간) 모나코 국제회의 센터 '그리말디 포럼(Grimaldi Forum)'에서 유럽포럼을 열고 2016년 전략제품들을 공개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KS9000, KS8000, KS7000 시리즈 등 역대 최다 SUHD TV 라인업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유럽형 SUHD TV는 커브드형 12개를 포함해 총 19개 모델로 구성됐다. 화면 크기는 43~98인치 등 다양하다. 북유럽 지역에서 선호하는 화이트 색상의 TV 제품(KU6510·K5510)도 내놨다.

삼성 SUHD TV는 친환경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 1000니트 밝기의 HDR(High Dynamic Range) 기술과 자연 그대로의 색을 표현하는 퀀텀닷 컬러 기술이 적용됐다.

TV 화면 배젤을 최소화해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바운드리스 디자인(Boundless Design)'과 열린 형태의 주거 방식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를 위해 모든 각도를 고려한 360 디자인 등을 강조했다.

리테일 솔루션 전시 코너에서는 첫 화면에서 바로 원하는 콘텐츠로 진입하고 TV 주변기기를 손쉽게 제어하는 등 스마트 TV 기능을 참가자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했다.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기술로 3차원 입체 사운드를 제공하는 사운드 바(HW-K950), 4배 선명한 화질과 8배 넓은 색상에 HDR 기능도 지원하는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UBD-K8500) 등 다양한 AV 제품들도 소개했다.

생활가전은 지난해 국내 첫 출시한 '에드워시' 드럼 세탁기 등 혁신성을 강조한 프리미엄 혁신 제품들을 보여줬다.

'에드워시' 드럼 세탁기는 도어 상단의 '에드워드우'로 빨래 도중 세탁물과 세제, 유연제를 원하는 시점에 추가할 수 있다.

공간 제약이 있는 유럽 주거공간에 맞춰 중소형으로 출시된다. '스마트 컨트롤(Smart Control)'까지 더해졌다. 세탁기 근처에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세탁 사이클을 확인하고 행균과 탈수·세탁 종료 시에 알려주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구현된다.

CES(가전 전시회) 2016에서 공개한 '패밀리허브' 냉장고도 포함됐다. 4도어 프렌치 도어 타입뿐 아니라 유럽지역에 특화된 상냉장·하냉동 방식의 2도어 냉장고인 BMF(Bottom-Mounted Freezer) 타입 제품으로도 선보였다.

/김민근기자



기아자동차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맥코믹 플레이스(McCormick Place)에서 열린 '2016 시카고 오토쇼(2016 Chicago Auto Show)'에서 친환경 소형 SUV '니로(Niro)'를 공개했다.

기아차, 친환경SUV '니로' 세계 최초 공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엔진 장착

국내 첫 친환경 SUV 차량인 '니로'가 시카고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맥코믹플레이스에서 열린 '2016 시카고오토쇼(2016 Chicago Auto Show)'에서 친환경 소형 SUV인 '니로(Niro)'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니로는 기아차에서 처음 내놓는 소형 SUV이면서 국산차로서는 처음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SUV다. 다음달 국내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기아차 남양주디자인센터와 미국디자인센

터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니로에는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 및 변속기가 탑재됐다.

일반 강판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은 초고장력 강판을 53% 적용하고 일부 부품에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해 연료 효율도 높였다.

기아차는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공개한 데 이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앞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오스 헤드리 기아차 미국판매법인 상품전략담당 부사장은 "니로는 SUV의 실용성과 하이브리드의 고효율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췄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